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 미 애

(대전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삶의 질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대전의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서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 570명을 조사하였으며 삶의 질 측정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WHOQOL-BREF)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t-test, Oneway-ANOVA,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법처리과정 청소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부분에서는 삶의 질을 낮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낙인, 경제수준, 인권침해이었으나 삶의 질 하위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소 달랐다. 즉 신체적 건강영역에서는 부모낙인, 첫 체포나이, 사법처리절차, 인권침해, 주변낙인, 성별이 영향을 미쳤고 심리적 건강영역에서는 부모낙인, 비행횟수, 주변낙인, 성별, 첫 체포나이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관계영역에서는 부모낙인, 경제수준, 첫 체포나이, 비행횟수가, 환경영역에서는 경제수준, 부모낙인, 비행횟수, 사법처리절차, 성별이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비행관련요인, 사회적 낙인감, 사법처리과정 중 인권침해 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이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제어: 비행청소년, 소년사법과정, 삶의 질, 청소년복지, 교정복지, 청소년권리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소년범죄는 1998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지만 한해 대략 15만에서 13만건 정도 발생된다(문화관광부, 2003: 520-527). 그중 사이버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발생, 여성 및 학생 청소년들의 비행증가, 재범율의 증가 등은 비행청소년관련 정책 및 실천에 있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사법처리절차 과정에 있다는 것은 당사자인 청소년은 물론 가족에게

도 엄청난 사건이다. 비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비행유형이 무엇인지를, 설사 이전에 사소한 비행을 저질러 왔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비행문제가 사법기관에서 다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불안, 우울, 죄책감, 적개심, 좌절감 등 심한 정서적 불안정상태에 놓인다.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경험하는 구금, 가혹행위, 자백의 강요 등의 인권침해문제, 불리하거나 부당한 처우문제, 주위로부터의 낙인 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죄의식이나 자기반성을 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개심, 사회적 낙인감, 박탈감을 갖게 하기 쉽다. 또한 전문소년경찰관의 부족, 비행청소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미비 등은 초기에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어렵게 하고 미결구금, 전문 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소년보호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는 청소년들을 열악한 환경에 노출하게 한다(이성식, 1997; 윤용규·최종식, 2000; 정해룡, 2000; 이명숙, 2003; 남미애, 2004). 예를 들면 범죄소년이 보호소년교육기관에 들어오기까지는 검사 송치의 경우 약 3개월, 형사법원 판사 송치의 경우 약 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교육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이명숙, 2003: 74).

이와 같은 사법처리과정을 거치는 동안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삶의 질 수준은 청소년의 적응은 물론 교정성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청소년의 삶의 질은 지금까지 삶의 결과(outcome)이자 현재 삶의 수준을 평가하는 향후 생활의 지표(indicator)이며 현재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자(moderator), 조정자(mediator)이며 긍정적 발달과 건강한 적응을 알 수 있는 예측자(predictor)가 될 수 있다(Dew and Huebner, 1994; Huebner, 1997; Drotar, 1998; Faulker, 2003: 362-368; Huebner, 2004).

소년사법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이 처한 환경의 개선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나아가 법을 잘 준수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의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사법은 사법과정 동안 청소년이 향후 사회 적응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복지, 인권보장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비행청소년은 청소년복지의 대상인 동시에 교정복지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권리 및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법처리과정의 청소년의 삶의 질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은 사법처리과정의 청소년의 당면문제와 욕구 파악은 물론 현재 사법체계의 개입효과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심리사회적 적응과 건강, 인권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하는 사법환경의 개선방향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 방향을 모색하게 한다. 그러나 최근 인문사회과학에서 삶의 질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사법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복지 및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년사법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년사법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는 어떠한가?

2. 이론적 고찰

1) 비행청소년과 삶의 질

소년사법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이 처한 환경의 개선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과 원칙은 범법행위를 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과정에 처음으로 접하는 지점에서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소추 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 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및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행청소년의 사법처리절차는 특별 국가기관에서 맡는 것이 아니라 일반형사사법기관인 경찰 → 검찰 → 법원이 담당하고 있고 소년 교정기관으로는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그리고 갱생보호공단이 있다. 아무리 가벼운 비행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공식적인 사법처리절차를 거치는 청소년은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홍봉선·남미애, 2000; 홍봉선·남승규·남미애, 2002a: 54-63; 남미애, 2004: 164-168). 첫째, 수사, 구금 등으로 인하여 부모와 분리되어 지내고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 때문에 심한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둘째, 사법처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문제이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당하게 침해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셋째, 사회적 낙인감, 박탈감 및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과 냉대를 받으면서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적개심이나 좌절감, 분노, 소외감, 자포자기 등을 갖기 쉽다. 넷째, 법률지식의 부재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사법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향후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다섯째, 학교생활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이다. 사법처리과정 동안 검·경찰에 왕래를 하게 됨으로서 학교수업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간 교정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학교를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여섯째, 사회지지의 약화 및 해체이다. 비행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가족, 친구, 친척으로부터 소외되기 쉽다. 특히 장기간 사회로부터 단절된 청소년들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경우 새롭게 변화된 사회환경에의 적응문제는 매우 심각한 어려움이다. 일곱째, 성인범죄로의 전이이다. 위에서 언급한 열악한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청소년의 부적응적 행동은 반복적인 비행을 야기하기 쉽고 급기야는 성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동향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비행청소년의 높은 재범률은 이러한 위험을 더 가중시킨다.

이와 같이 사법처리과정 동안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문제들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고 낮은 삶의 질은 교정효과를 덜 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좌절감, 소외감, 적개심, 자포자기 사회적 박탈감 등을 갖게 하고 결국은 재비행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삶의 질은 어떤 수준이며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청소년부문에 있어서 삶에 질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관심을 제기되어 왔고 성인연구와 비교해서 매우 제한적이다(Bender, 1997; Huebner, 1997; Chipuer, Bramston, and Pretty, 2003; Faulker, 2003: 362-368; Huebner, 2004). 지금까지 행해진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알 수 있다. 첫째, 학자에 따라,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혼란되어 있지만 삶의 질이 다차원적이며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며 전반적인 복지감과 만족감을 포함하는 말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Cummins, McCabe, and Gullone, 1994; Drotar, 1998). 또한 삶의 질의 근본적인 차원은 개인의 생활만족과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다.

둘째, 청소년 삶의 질 연구는 주로 일반청소년(Dew and Huebner, 1994), 신체질환청소년(Faulker, 2003: 362-368; Zullig, Valois, Huebner, and Drane, 2004) 폭력피해자청소년(Coler, Mckeown, Sanderson, and Huebner, 2000)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가 보편적이고 비행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셋째, 청소년 삶의 질 측정도구와 관련해서는 정신과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Patrick, Edwards, and Topolski, 2002),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Bradford, Rutherford, and John, 2002; Harding, 2001) 등 특정부문의 청소년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넷째, 청소년 삶의 질은 주관적 복지감의 인지적 구성요소이며 긍정적 발달에 있어 지표(indicator), 예측자(predictor), 조정자(mediator), 완충자(moderator), 결과(outcome)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청소년의 삶의 질은 대상, 분야에 따라 매우 상이하지만 청소년의 발달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비행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삶의 질 연구는 조명환·김정년·권석만(1994), 문선화 외(2000)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비행청소년의 삶의 질 연구가 소극적인 이유에는 청소년의 시간주기에 따른 역동적 발달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적절한 도구의 부족문제,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을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특성(Faulker, 2003: 362-368) 등의 작용요인 등 이외에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무관심과 왜곡된 생각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비행청소년은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는 사회 문제를 유발한 사람이므로 응당한 죄 값을 치러야 하고 그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행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는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나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아량과 자신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일반인들의 개인적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이므로 국가정책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영향은 비행청소년 연구방향에도 작용한다고 본다.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 연구는 다음의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비행청소년의 삶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비행청소년집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서 비행청소년들을 둘러싼 어려움과 심리 사회적 문제, 인권침해 문제, 불평등양상을 규명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소년사법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 평가를 통해 비행청소년집단의 요구를 예상하고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건강은 미래 인구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비행청소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비행청소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정책방향과 새로운 전략, 지침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서구의 경우 비행청소년을 보호나 통제의 대상이 아닌 유용한 사회자원으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긍정적 장점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넷째, 비행청소년의 인권향상에 기여한다. 청소년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던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법처리과정을 거치고 있는 비행청소년도 예외일 수 없다. 청소년 삶의 질을 바르게 아는 것은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권향상에 기여한다.

다섯째, 비행청소년의 삶의 질 연구는 청소년의 욕구와 개별성을 고려한 보호와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계획과 시행과정개입에 도움이 된다. 비행청소년의 주관적 및 객관적 삶의 질 연구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가 기관 중심적이거나 비행경력에 기초한 획일적인 것이 아닌,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전문적, 체계적 개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여섯째, 비행청소년 삶의 질은 개입효과 및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개념이 될 수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분야에서는 개입효과에 대한 정량화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삶의 질의 개념을 비행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재의 서비스 노력들의 사회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민감화시키는 개념이다.

2) 비행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행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비행청소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 삶의 질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 검토들을 통해 관련 요인들을 추출하면 크게 개인적 요인, 비행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요인이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만 이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네토(Neto, 2001), 문선화 외(2000) 연구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조명한 외(1994), 전신현(1996)의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삶의 질 점수가 떨어진다고 한다. 특히 조명한 외(1994)는 여자청소년의 삶의 질이 낮은 것은 남녀간의 사회제도적 불평등구조와

성역할 및 성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불균형구조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울만과 타탈(Ullman and Tatar, 2001)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청소년에 대해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조명한 외(1994: 77-79)에 따르면 삶의 질이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대학생집단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치푸퍼, 브람스톤과 프레티(Chipuper, Bramston, and Pretty, 2003)는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라 청소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하므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소득과 청소년 삶의 질은 관계가 있다. 부모의 소득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가장 의미 있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다(Jirojanakul, Skevington, and John, 2003; Shek, 2003). 또한 스미스(Smith, 1992), 문선화 외(2000)는 사회계층이나 가족수입과 같은 경제수준이 청소년의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지각된 경제적 스트레스(현재의 경제적 곤란과 미래의 경제적 어려움)와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감은 물론 청소년의 부적응에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Conger, Rueter, and Conger, 2000; Shek, 2003).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이다. 사회환경적 요인은 크게 공식적 환경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처우, 사회 낙인들이 포함된다. 공식적 환경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은 역기능적 정서를 초래하고 청소년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홍봉선·남미애(2000)에 따르면 검·경찰의 폭력성이 높을수록, 비민주적일수록, 비전문적일수록, 공정한 처우를 하지 않을수록 사법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낙인, 사회적 박탈감이 더 높았고 검찰이 비민주적일수록, 비전문적일수록 자기반성이 적었다. 김준호·이순래(1994)는 비행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처우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를 배척한 사람을 배척하여 반사회적 성향을 정형화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으며 사회내 처우와 시설내 처우의 교정효과를 연구한 이성식(1997)에 따르면 시설내처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낙인감이 더 높으며 결과적으로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사회로부터 차별이나 낙인, 소외감 등은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Cowdery and Pesa, 2002; 김영만·손영우, 2003). 낙인이론가들은 지각된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부정적 자기인식의 개발과 더 큰 비행으로 이끈다고 한다. 오복자(1994), 이순희(1999)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백은령(2003)도 사회적 인식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지만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민청소년의 적응을 연구한 네토(Neto, 2001)에 따르면 인지된 차별이 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이 찍혔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더 많이 비행에 개입한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지지된 연구도 있다(Adams, Robertson, Gray-Ray, and Ray, 2003). 또한 청소년의 경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요한 사람으로부터의 긍정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배척이나 소외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Lincoln, 2000; Pagano,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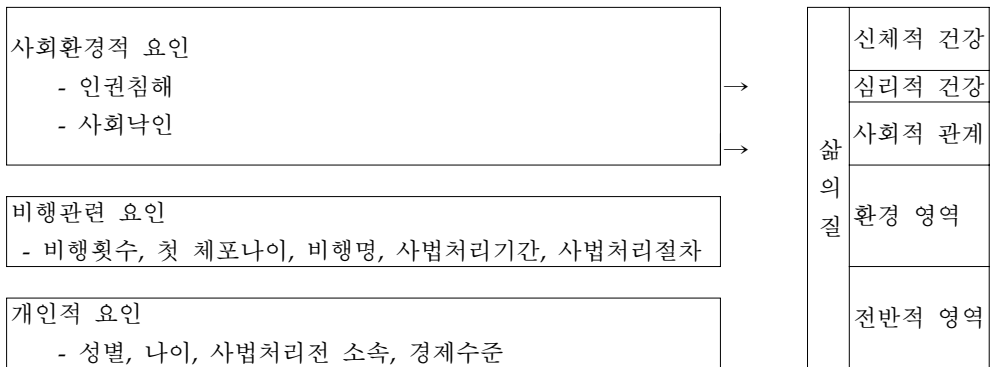
셋째, 비행관련 특성이다. 여자고등학생들의 심각한 데이트폭력과 삶의 질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폭력희생자들은 낮은 삶의 질과 자살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생활만족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Coler et al., 2000). 홈리스 청소년과 고위험청소년들이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낮음이 발견되었다(Bearsley and Cummis, 1999). 또한 건강위험행위(흡연, 알코올, 물질남용, 성적 행동)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청소년들은 자주한다는 청소년들보다 삶의 질 점수가 높았고 다양한 위험행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하나의 행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보다 삶의 질이 낮았다(Topolski, Patrick, Edwards, Huebner, Connell, and Mount, 2001). 또한 청소년의 건강관련 삶의 질 연구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날의 숫자, 정신건강으로 건강하지 않은 날, 활동제한 날들은 청소년의 낮은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약물사용, 담배흡연이 증가하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하였다(Zullig et al., 2004).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주관적 복지감에 차이가 있다. 무노즈짜스트와 페릴(MunozSastre and Ferriere, 2000)에 따르면 시설이 아닌 가정에 배치된 청소년의 생활만족감이 더 크다고 하였으며 채맨(Chapman, 1981)은 수감자의 복지와 구금상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현실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구금환경은 수감자의 복지와 부적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3) 본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특성 및 삶의 질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비행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비행관련 요인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삶의 질은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에 따라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 영역(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건강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 전반적 영역)에 비행청소년의 개인적, 사회환경적, 비행관련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청소년의 표집에 있어서는 서울, 대전, 부산 소재의 소년원, 보호관찰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과 상담실이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교정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청소년도 일부 포함되었다. 또한 여자비행청소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안양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을 조사하여 최종 570명의 청소년을 조사하였다. 그중 본 연구에서는 조사목적에 가장 부합하기 위해 소년원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533명의 조사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소년원 조사의 경우 본 연구자가 직접 소년원을 방문하여 보조연구자, 소년원 담당선생님들과 함께 대강당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 조사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집단교육이 있는 보호관찰소의 경우에는 조사자가 직접 나가 조사하여 수거하였으며 개별방문이나 면접이 필요한 보호관찰소의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직접 가정방문하거나 면접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2) 조사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소년사법 청소년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민성길 등(2000)이 개발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를 사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의 삶의 질 연구가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비행청소년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적합한 도구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모든 문화권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검사로 세계보건기구가 각 문화권에서 표준화할 때 시행하도록 한 지침에 맞추어 우리나라에 맞게 표준화한 척도로서, 신체, 심리, 사회, 환경, 전반적 영역에 걸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래 측정 대상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점, 청소년전문가의 자문, 예비조사에서의 청소년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 사용되었다.

WHOQOL-BREF(세계 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는 WHOQOL의 24개의 하부척도 각각으로부터 한 항목씩 선택되어 구성된 것으로 최근 2주간의 기간동안 주관적으로 느낀 삶의 질을 자가 평가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는 몇 차례의 표준화작업을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기준 타당도, 내용타당도, 변별타당도 등에서 적절한 평가도구임이 입증되었다(민성길 외, 2000: 571-578).

이는 ① 신체적 건강영역 ② 심리적 영역 ③ 사회적 관계영역 ④ 환경영역 등 4개의 영역에 속하는

24개의 하부척도와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overall QOL)에 대한 두 문항을 포함하여 전체 2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약간 그렇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많이 그렇다'는 4점, '매우 많이 그렇다'는 4점으로 답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부정적 질문에 해당하는 항목은 6점에서 해당항목 점수를 뺀 값을 해당 점수로 하여 삶의 질이 높을수록 척도의 점수가 높게 계산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건강'은 신체적 통증, 치료에의 의존, 일상에 필요한 에너지, 거동능력, 수면상태, 일상의 활동성,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심리적 건강'은 인생을 즐기는 정도, 삶의 의미, 집중력, 신체상과 외모, 자신에 대한 만족, 부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사회적 관계'는 대인관계, 성생활,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환경 영역'에서는 신체적 안전, 건강에 좋은 주거환경, 재정능력, 새로운 정보습득 기회, 여가활동 기회, 거주장소의 물리적 환경, 의료서비스,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전반적 영역'은 '당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와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의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민성길 외(2000)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0.898이었으며 각 영역별로는 0.583-0.777의 범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0.879이었으며, 각 영역별로는 사회적 관계(0.84), 심리적건강(0.80), 전반적 영역(0.74), 환경영역(0.69), 신체적 건강(0.62)의 범위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을 예측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 변수군, 사회환경적 변수군, 비행관련 변수군을 사용하였다. 먼저, 개인적 변수군에서는 성별, 나이, 사법처리전 소속, 경제수준을 조사하였다. 그중 사법처리전 소속은 학생과 비학생으로 구분하였고 경제수준은 못사는 편, 보통, 잘사는 편으로 구분하였다. 사회환경적 변수군에는 사법처리과정 중 인권침해, 사회낙인을 조사하였다. 사법처리과정 중 인권침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홍봉선·남미애(2000)가 사용한 사법과정의 처우형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크게 사법처리에서의 처우형태를 폭력성, 비민주성, 비전문성, 불공정성의 4가지 내용으로 11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범주는 '1=전혀 아니다'부터 '5=매우 많이 그렇다'의 5단위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침해요소가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06으로 높게 나왔다.

사회낙인은 버크와 툴리(Burke and Tully, 1977)가 개발한 비공식적 사회낙인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청소년을 둘러싼 중요한 타자(즉 부모, 교사, 친구, 주변사람)들이 청소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협력적 또는 문제가 많은, 좋은 또는 나쁜, 순응적인 또는 일탈적인, 유순한 또는 나쁜, 예의바른 또는 예의 없는 법을 지키는 또는 안 지키는 등 6가지 하위영역을 조사하였고 긍정적인 것은 0점, 중립적인 것은 1, 부정적인 것은 2점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6으로 높게 나왔다.

비행관련 변인은 비행횟수, 첫 체포시기, 비행명, 사법처리기간, 현 사법처리절차를 파악하였다. 먼저 비행횟수는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첫 체포시기는 16세 이하, 17세 이상 집단으로 구분

하였으며 비행명은 폭력, 절도, 기타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법처리기간은 6개월 전, 후로 구분하였고 사법처리절차는 소년원단계, 보호관찰단계로 구분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dow 12.0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의 수준을 파악하기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청소년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way-ANOVA를, 그리고 소년사법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4.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성 395명(74.1%), 여성 138명(25.9%)으로 여성이 조사대상자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17세에서 19세까지가 61.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0세 이상이 29.4%였으며 16세 이전은 9.1%였다. 사법처리 전 소속은 무직이 4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고등학생(27.9%), 중학생(20.8%), 근로(7.9%)의 순이었다. 즉 사법처리 전에 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청소년은 과반수 정도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부모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건설노무직(27.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영업(26.7%)이고 관리직이나 사무직, 전문직은 매우 낮았다.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이 37.1%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23.9%), 서비스직(12.3%)의 순으로 마찬가지로 직업이 불안정하고 영세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이 6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어려운 편(32.3%)이었으며 6.0%가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총계	
성별	남	395(74.1%)	
	여	138(25.9%)	
연령	16세이하	48(9.1%)	
	17세	67(12.6%)	
	18세	111(20.8%)	
	19세	151(28.3%)	
	20세-22세*	156(29.4%)	
사법처리전 소속	초등학생	8(1.5%)	
	중학생	111(20.8%)	
	고등학생	149(27.9%)	
	근로	42(7.9%)	
	무직	223(41.9%)	
경제수준	잘사는 편	32(6.0%)	
	보통	327(61.7%)	
	어려운 편	171(32.3%)	
부모의 직업		부	모
	자영업	119(26.7%)	101(23.9%)
	공무원	22(4.9%)	5(1.2%)
	전문직	2(0.4%)	3(0.7%)
	관리직	18(4.0%)	8(1.9%)
	사무직	32(7.2%)	28(6.6%)
	서비스직	31(7.0%)	52(12.3%)
	생산기술직	51(11.5%)	32(7.6%)
	건설노무직	121(27.5%)	11(2.6%)
	무직(전업주부)	35(7.9%)	156(37.0%)
	기타	14(3.1%)	26(6.2%)

*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나 소년원, 보호관찰소의 경우 처분기간에 따라 22세까지 포함됨.

2) 관련변인에 대한 기술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련변인에 대한 기술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비행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현재 사법처리과정에 들어오게 된 비행명으로 절도가 40.3%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에 기타(29.6%), 폭력(20.1%)의 순이었다. 현재까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사법처리과정을 경험한 비행횟수로는 1번이 29.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번 이상(27.4%), 2번(19.1%), 3번(15.6%)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2번 이상 소년사법과정을 경험한 청소년이었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1/4 이상은 5번 이상 경험한 청소년이었다. 현재 사법처리절차로는 소년원 단계가 295명, 보호관찰단계가 234명이었다. 사법처리과정에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경과기간을 조사한 결과 6개월 전이 55.3%였으며 6개월 후가 44.7%를 차지하였다. 경찰에 처음으로 체포된 나이를 조사한 결과 15세가 23.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6세(20.1%), 17세(17.4%), 14세(12.0%), 18세

(10.5%)의 순이었다. 약 9%는 14세 이전에 구속된 청소년이었으며 과반수 정도는 16세 이전에 비행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적 변수군에 대한 기술분석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인권침해는 평균 2.4949로 사법처리과정 중 인권침해 요소가 다소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은 교사낙인(1.0488), 주변낙인(0.9071)이 가장 높고 부모낙인(0.7970), 친구낙인(0.784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 비행관련 요인

구분		총계
비행명	절도	215(40.3%)
	폭력	107(20.1%)
	기타	211(39.6%)
비행횟수	1번	157(29.6%)
	2번	101(19.1%)
	3번	74(15.6%)
	4번	53(10.0%)
	5번 이상	145(27.4%)
사법처리절차	소년원	296(55.5%)
	보호관찰소	237(44.5%)
사법처리기간	6개월 전	293(55.3%)
	6개월 후	237(44.7%)
첫체포나이	12세 이전	18(3.4%)
	13세	29(5.4%)
	14세	64(12.0%)
	15세	126(23.6%)
	16세	107(20.1%)
	17세	93(17.4%)
	18세	56(10.5%)
	19세 이상	40(7.6%)

<표 3> 사회환경적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 환경 요인	인권침해	529	1.00	4.91	2.4949	.99946	
	사회적 낙인	부모낙인	528	.00	2.00	.7970	.43245
		친구낙인	532	.00	2.00	.7845	.40037
		교사낙인	533	.00	2.00	1.0488	.49382
		주변낙인	531	.00	2.00	.9071	.46463

3) 소년사법 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

소년사법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은 한국판 WHOQOL-BREF로 측정되었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영역별 삶의 질 점수는 환경 영역이 2.81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심리적 건강(3.01점), 사회적 관계(3.14점), 전반적 영역(3.17점)의 순이었고 신체적 건강(3.31점)이 가장 높았다. 항목별 삶

의 질 점수 평균은 최저 2.08점에서 최고 4.11점까지 분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에서는 에너지와 피로, 거동능력, 일상생활활동성, 직무수행 능력부문들이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거동능력이나 일상생활 활동성이 낮은 것은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정도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청소년들이라는 점에 기인된다고 보여진다. 반면 수면과 휴식은 점수가 높는데 반해 에너지와 피로, 직무수행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물리적, 시간적 여유는 많으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 건강부분에서는 신체상과 외모, 사고학습, 긍정적 감정 부분이 평균보다 낮았으며 사회적 관계에서는 실제적 사회적 지지만 낮고 대인관계나 성적 부분은 평균보다 높았다. 환경부분에서는 거주장소의 물리적 환경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부분에서 낮았는데 특히 재정능력, 새로운 정보습득기회, 여가생활참여 기회, 거주환경에서 낮았다. 전반적 부분에서는 건강에 대한 만족은 높았으나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낮았다.

〈표 4〉 조사대상자의 항목별 삶의 질 점수

		항목별 평균(표준편차)	전체 평균(표준편차)
신체적 건강	통증과 불편감*	4.05(1.11)	3.31(0.63)
	약물이나 치료의존*	4.11(1.10)	
	에너지와 피로	2.96(1.09)	
	거동능력	2.95(1.01)	
	수면과 휴식	3.46(1.24)	
	일상생활의 활동성	2.83(1.26)	
심리적 건강	직무수행 능력	2.90(0.98)	3.01(0.80)
	긍정적 감정	2.98(1.25)	
	영성 및 개인적 신념	3.08(1.21)	
	부정적 감정*	3.22(1.02)	
	자존감	3.08(1.01)	
	신체상과 외모	2.82(1.13)	
사회적 관계	사고학습	2.86(1.15)	3.14(0.84)
	대인관계	3.22(1.02)	
	성적 활동	3.29(1.05)	
	실제적 사회적 지지	2.90(1.01)	
환경 영역	신체적 편안함	2.99(1.17)	2.81(0.68)
	거주환경	2.78(1.14)	
	재정능력	2.08(1.05)	
	새로운 정보습득 기회	2.53(1.08)	
	여가생활 참여 기회	2.73(1.13)	
	거주장소의 물리적 환경	3.34(1.10)	
	서비스 이용가능성	3.03(1.07)	
	교통수단	2.93(1.06)	
	전반적 삶의 질	3.11(0.81)	
전반적 건강만족	3.23(1.09)		

※ 삶의 질 점수의 범위는 1-5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높음을 의미함.

*는 역점수하였음.

본 연구결과에서 나온 소년사범 청소년의 삶의 질이 어떠한 수준인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와 같이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표 5>와 같다. 소년사범청소년은 노숙자보다는 전반적으로 삶의 질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대구시민과 경기도 공무원의 삶의 질 수준과 비교해 볼 때 환경부분에서 제일 많은 차이가 났으며 그 다음이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의 삶의 질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범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이 낮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반가운 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과 일반인들의 삶의 질 비교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삶의 질이 높다는 점³⁾, 설사 동일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시점이 각기 상이하다는 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은 상대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기 쉽다고 볼 때 같은 연령층의 청소년에 대한 비교결과가 없다는 점,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사범처리과정 종결단계에 있다는 점,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사범처리 전부터 비행청소년의 삶이 이미 열악하였다는 점 등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범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이 환경, 심리,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질 하위영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연령층의 일반청소년과 사범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 비교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표 5> 삶의 질 간편척도를 사용한 타집단과의 삶의 질 수준 비교

	조사대상자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환경적 영역	전반적 영역
이종렬(1999)	대구시민	3.31	3.26	3.15	3.09	3.11
김미경(2001)	경기도 공무원	3.44	3.31	3.32	3.06	3.15
윤경아·노병일(2005)	노숙자	2.84	2.45	2.72	2.30	2.38
본 조사(2005)	소년사범청소년	3.31	3.00	3.14	2.81	3.17

4) 관련변인에 따른 삶의 질 차이

관련 변인에 따라 청소년 삶의 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별에서 보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삶의 질이 높았으며 비행횟수에서는 비행횟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았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질 점수가 낮았으며 사범처리절차에서는

3) 동일한 조사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울만과 타탈(Ullman and Tatar, 2001), 조명한 외(1994: 77-79)의 연구결과에서는 청소년기라고 할지라도 전기보다는 후기에 들어감에 따라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WHO의 삶의 질 조사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를 사용한 민성길 외(2002: 22)의 연구결과에서도 나이가 적은 군에서 대체로 삶의 질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보호관찰청소년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았다. 그러나 나이, 비행명, 사법처리 기간, 비행전 소속에 따라서는 집단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표 6〉 개인적 및 비행관련 변인에 따른 삶의 질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F	자유도	유의확률
성별	남	391	3.1004	0.60005	-3.059	527	0.002
	여	138	2.9256	0.50673			
나이	13-16세	46	3.0167	0.53168	0.224	2	0.799
	17-19세	327	3.0673	0.58906			
	20세-22세	156	3.0399	0.58325			
비행명	절도	212	3.0343	0.54167	0.315	2	0.730
	폭력	107	3.0485	0.66141			
	기타	210	3.0788	0.57967			
사법처리 기간	6개월 전	290	3.0333	0.60714	-0.965	524	0.335
	6개월 후	236	3.0826	0.55245			
비행횟수	1회	156	3.1630	0.57383	3.798	2	0.023
	2회	100	3.0638	0.62646			
	3회	270	2.9880	0.56287			
첫체포나이	16세 이전	341	3.0471	0.56557	-0.408	527	0.683
	17세 이후	188	3.0687	0.61142			
경제수준	잘사는 편이다	31	3.1427	0.71447	5.816	2	0.003
	보통이다	326	3.1077	0.55407			
	못사는 편이다	169	2.9281	0.59043			
비행 전소속	비학생	263	3.0437	0.56478	-0.436	527	0.683
	학생	266	3.0658	0.59901			
현사법처리 절차	소년원	295	2.9712	0.57616	-3.758	527	0.000
	보호관찰소	234	3.1603	0.57285			

〈표 7〉은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른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인권침해, 부모낙인, 교사낙인, 주변낙인은 모두 삶의 질과 0.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인권침해가 높을수록, 부모낙인이 높을수록, 친구낙인이 높을수록, 교사낙인이 높을수록, 주변낙인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았다. 사회환경적 요인에서는 부모낙인과 주변낙인이 교사낙인이나 인권침해보다는 삶의 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7〉 사회환경적 요인과 삶의 질의 관련성

		인권침해	사회적 낙인			
			부모낙인	친구낙인	교사낙인	주변낙인
삶의 질	상관계수	-0.155	-0.264	-0.211	-0.142	-0.251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1	0.000

5) 소년사범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년사범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삶의 질 척도의 하위차원인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환경 영역, 전반적 삶의 질을 결과변수로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수간 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낙인 요인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있었다(최소 0.072, 최대 0.620). 따라서 사회적 낙인요인만으로 다중회귀분석의 변수선택법을 이용하여 유의미한 변수인 부모낙인, 주변낙인만을 이용하여 일반선형모형에 사용하였다(〈표 8〉 참조).

먼저 신체적 건강영역에서는 부모낙인($p<0.01$), 첫 체포나이($p<0.01$), 사법처리절차($p<0.05$), 인권침해($p<0.001$), 주변낙인($p<0.05$), 성별($p<0.05$), 경제수준($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낙인이 적을수록, 첫 체포시기가 16세 이전이 17세 이상보다, 소년원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의 경우, 인권침해가 적을수록,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이 신체적 건강을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았으며($p<0.05$),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신체적 건강에서는 부모낙인, 첫 체포시기, 사법처리절차, 인권침해, 주변낙인, 성별, 경제수준 순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 영역의 삶의 질 예측모델은 모형적합도가 $p<0.001$ 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선행변수들이 이 모델을 설명하는 정도는 전체 분산의 19.3%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건강영역의 삶의 질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에서 선행변수들이 심리적 건강을 설명하는 정도(R^2)는 전체 분산의 8.4%로 나타났다. 심리적 건강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낙인($p<0.01$), 주변낙인($p<0.05$), 비행횟수($p<0.1$), 성별($p<0.05$), 첫 체포나이($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즉 부모낙인이 적을수록, 주변낙인이 적을수록,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의 경우, 첫 체포나이가 17세 이상에 비해 16세 이전의 경우 심리적 건강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비행횟수의 경우 3회 이상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비해 비행이 1회인 청소년($p<0.05$), 2회인 청소년($p<0.1$)들이 심리적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심리적 건강영역에는 부모낙인, 주변낙인, 비행횟수, 성별, 첫 체포나이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관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낙인($p<0.001$), 경제수준($p<0.1$), 첫 체포나이($p<0.01$), 비행횟수($p<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낙인이 적을수록, 첫 체포나이가 16세 이전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의 경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에 비해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p<0.1$),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p<0.1$)들이 사회적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행횟수의 경우 비행횟수가 3회 이상인 청소년에 비해 1회인 청소년의 사회적 삶의 질이 높았으며($p<0.1$), 2회인 청소년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는 부모낙인, 경제수준, 첫 체포나이, 비행횟수 순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영역의 삶의 질 예측모

델에서 모형적합도는 $p < 0.001$ 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선행변수들이 이 모델을 설명하는 정도는 전체 분산의 9.9%로 나타났다.

〈표 8〉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수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건강		환경영역		전반적 영역	
	B	유의 확률	B	유의 확률	B	유의 확률	B	유의 확률	B	유의 확률
절편	3.849	0.000	3.047	0.000	3.221	0.000	2.862	0.000	3.580	0.000
성별(남)*										
여자	-0.140	0.032	-0.178	0.042	-0.111	0.216	-0.174	0.015	-0.022	0.780
나이(20세이상)		0.781		0.491		0.309		0.973		0.236
13-16세	0.056	0.621	-0.090	0.560	-0.004	0.980	0.021	0.869	-0.054	0.689
17-19세	-0.014	0.823	-0.098	0.234	-0.117	0.168	-0.005	0.941	0.095	0.196
비행 전소속(학생)										
비학생	0.051	0.366	0.094	0.220	0.120	0.129	0.087	0.166	-0.024	0.721
경제수준(어려운 편)		0.045		0.115		0.063		0.000		0.004
잘 사는 편	-0.008	0.946	0.168	0.282	0.308	0.057	0.517	0.000	0.228	0.108
보통	0.134	0.020	0.158	0.042	0.154	0.054	0.291	0.000	0.225	0.001
비행횟수(3회이상)		0.766		0.056		0.062		0.070		0.724
1회	0.048	0.557	0.256	0.022	0.262	0.022	0.210	0.021	-0.079	0.424
2회	-0.006	0.933	0.183	0.076	0.072	0.498	0.100	0.235	-0.043	0.640
첫체포나이(17세 이상)										
16세 이전	0.178	0.004	0.166	0.047	0.272	0.002	0.088	0.199	0.035	0.636
비행명(폭력)		0.574		0.402						0.514
절도	0.057	0.435	-0.084	0.393	0.084	0.405	0.046	0.564	0.060	0.497
기타	0.076	0.295	0.020	0.841	0.057	0.570	0.101	0.203	0.100	0.252
사법처리기간(6개월후)										
6개월전	-0.039	0.473	-0.051	0.490	-0.087	0.248	-0.064	0.288	-0.077	0.238
처리절차(보호관찰소)										
소년원	-0.166	0.018	-0.016	0.867	-0.143	0.138	-0.201	0.009	-0.121	0.149
사회환경요인										
부모낙인	-0.213	0.003	-0.263	0.007	-0.372	0.000	-0.303	0.000	-0.300	0.001
주변낙인	-0.141	0.039	-0.205	0.025	-0.131	0.165	-0.068	0.367	-0.087	0.291
인권침해	-0.150	0.000	0.060	0.116	0.024	0.547	-0.008	0.805	-0.097	0.005
모형적합도	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R ²	0.193		0.084		0.099		0.163		0.124	

넷째, 환경영역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수준($p < 0.001$), 부모낙인($p < 0.001$), 비행 횟수($p < 0.1$), 사법처리절차($p < 0.001$), 성별($p < 0.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의 경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에 비해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p < 0.001$),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환경영역의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부모낙인이 적을수록,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이 소년원 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환경영역의 삶의 질이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횟수의 경우 비행횟수가 3회 이상인 청소년에 비해 1회인 청소년($p < 0.001$)이 환경관련 삶의 질이 좋다고 인식하였고 2회인 청소년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환경적 영역에 있어서는 경제수준, 부모낙인, 비행횟수, 사법처리절차, 성별 순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적 영역의 삶의 질 예측모델에서 모형적합도는 $p < 0.001$ 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선행변수들이 이 모델을 설명하는 정도는 전체 분산의 16.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낙인($p < 0.001$), 경제수준($p < 0.05$), 인권침해($p < 0.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낙인이 적을수록, 인권침해가 적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경제정도가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에 비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 < 0.001$),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전반적 삶의 질에는 부모낙인, 경제수준, 인권침해의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삶의 질 예측모델에서 모형적합도는 $p < 0.001$ 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선행변수들이 이 모델을 설명하는 정도는 전체 분산의 12.4%로 나타났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조사결과에서 발견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대상청소년은 사법처리 전부터 과반수 정도가 학교를 그만 둔 상태였으며 부모의 직업은 매우 불안정하고 영세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약 1/3이 열악한 경제수준에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은 타집단에 비해 그다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측과는 다른 것으로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질 하위영역에 따라서는 삶의 질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삶의 질 척도를 사용한 대구시민과 경기도 공무원의 삶의 질 수준과 비교해 볼 때 환경부분에서는 월등히 낮았고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특히 환경,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부분에서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은 경찰구속에서부터 사법처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질적인 사법체제와의 접촉으로 인한 불안과 걱정, 죄책감 등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분류심사원, 소년원과 같이 장시간 시설생활로 인해 경험하는 열악한 의식주문제, 인권침해, 단조로운 여가생활 및 사회적 지지체계와의 단절 등에 기인된다고 하겠다. 홍봉선·남승규·남미애(2002a)의 연구에서와 같이 사법처리과정 중 비행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교정성 반응에 관계가 있음을 적용해 볼 때 사법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삶의 질도 교정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욕구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사법환경은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없음을 고려해 볼 때 사법처리과정 청소년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환경적 부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다. 또한 동일한 연령대에 있는 일반청소년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어떠한지를 보다 정교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삶의 질은 하위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청소년이 남자보다, 비행횟수

가 많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첫 체포시기가 17세 이상 집단이 16세 이하 집단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 소년원생이 보호관찰청소년보다 삶의 질이 낮았다. 여자청소년의 삶의 질이 낮은 것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명한외(1994), 전신현(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는 여자비행청소년의 삶의 질이 남자비행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은 남성중심의 사법환경과 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여자청소년의 비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사법처리과정에서 주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과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한다고 하겠다. 이미 정진연(1996), 김인숙(1992), 김두실·전영실(1996)에 따르면 여성범죄자들은 남성과 다른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를 가지고 있음으로 사법처리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부모의 경제수준과 청소년의 삶의 질이 관계가 있다는 문선화외(2000), 셰크(Shek, 2003)의 연구결과는 비행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심영희(1987), 김준호·노성호(1989), 홍봉선·남미애(2000), 홍봉선·남승규·남미애(2002b) 등에서는 똑같이 비행을 저질러 사법처리과정을 거치더라도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상이한 사법처리경험을 경험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경제정도가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과 적응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한 내용처럼 설사 똑같은 사법처리과정을 거치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의 경제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또한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장소에 따라 주관적 복지감에 차이가 있다는 무노즈사스트와 페릴(MunozSastre and Ferriere, 200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과 지역사회 내 처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시설처우 청소년이 사회내처우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설내처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사회내처우 청소년에 비해 공식기관의 처벌위험을 더 많이 느끼고 부정적 자아가 높고 사회적 낙인감이 더 높다는 이성식(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

사회환경적 요인에서는 사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적은 집단, 사회적 낙인이 적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똑같이 어려운 사법처리과정 중에서도 높은 인권침해나 높은 사회적 소외 등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았다. 따라서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은 하위집단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행청소년의 지도와 접근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특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차별적 개입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셋째,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질에는 부모낙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제수준, 인권침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부모낙인, 주변낙인 등 사회적 낙인은 비행청소년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부모낙인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기존의 실증적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의 지지나 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전체적인 삶의 질 결

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Dew and Huebner, 1994; Ben-Zur, 2003). 부모와 친밀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 자기에 대한 행복감이 높고 우울이 적으며(Field, Lang, Yando, and Bendell, 1995)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탄력성을 가지며(Herman-Stahl and Paterson, 1996) 지지적 부모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조장한다(Franco and Levitt, 1998).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모의 지지는 친구의 지지로 보충은 되어도 대체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지지제공자라고 하였다(van Beest and Baerveldt, 1999; Weigel et al., 1998). 강세현(2000)에 따르면 가정에서 통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보여준 자긍심의 실추 정도와 사회적 태도의 부정적인 정도는 사법기관에서 공식통제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은 공식 낙인에 대한 완충장치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즉 설사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주변의 용서와 화해로 기존의 관계 속에 통합될 수 있다면 재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호·이순래(1995)도 소년기 범죄자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의 상황이 보다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성인범죄자로 발전되었으며 소년기 비행횟수에는 가족환경, 친구관계, 지역사회환경 등 주변환경의 영향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인권침해는 신체적 건강과 전반적 삶의 질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법처리과정 중 부당하게 침해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윤진(1998: 189), 오영근·최병각(1995: 23)의 연구에서 제기되었듯이 수사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자백의 강요, 불공평한 처우, 관행화된 불법구금의 신체상의 구속으로 인한 자유권 박탈, 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처리로 인한 미결구금의 남용 등은 계속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법처리과정에서의 부정적 처우는 교정성 효과를 떨어뜨리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급기야는 재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는 검·경찰의 처우가 폭력적, 비민주적, 비전문적, 공정하지 않을수록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분노, 불안, 억울함 등 부정적 정서가 높고 사회적 낙인, 사회적 박탈감을 높이고 자기반성과 준법성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교정효과를 저하시킨다는 홍봉선·남미애(2000)의 실증적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영역별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적 요인에서는 성별이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환경영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수준은 심리적 건강을 제외한 전 하위영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나이나 비행 전에 신분이 학생인지 아닌지보다는 성별과 경제수준이 의미 있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행관련 요인에서 첫 체포시기는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비행횟수는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환경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사법처리절차는 신체적 건강, 환경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비행관련요인에서는 비행명, 사법처리기간보다는 첫 체포시기, 비행횟수, 사법처리절차가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비행이 많을수록 분노와 좌절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심영희(1987)의 연구, 체포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체포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불안이나 공격성 등 행동적,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 로젠블라트(Rosenblatt et al., 2000)의 연구에서는 비행횟수와 삶의 질에 대해 암묵적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시설내처우

와 사회내처우에 따라 비행청소년의 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들이 제기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내처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설내처우가 상당히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정이 아닌 낯선 환경에서 일정기간 기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갖는 유용한 자원들이 시설청소년에게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단절과 격리로 인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미한 비행이나 처음으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가능한 한 사회 내 처우를 행하도록 하고 특별히 전문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시설처우를 행하게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반적인 삶의 질과 하위영역별로 삶의 질은 서로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하위영역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적, 비행관련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을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법처리과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압박감과 고통이외에도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경험한다. 따라서 이들 고위험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 소년사법처리 초기과정부터 청소년과 가족에게 상담 및 자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수준에 따라 사법처리과정에서 낙인이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법처리과정을 거치는 동안 부모와 친구 등 중요한 지지체계가 잘 유지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친구나 부모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지지체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인권 보호가 증진되어야 한다. 비행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약의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소년사법과정에서 청소년이 어떻게 처우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고 있다.⁴⁾ 구속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능한 한 단기간에 한하여 이용되어야 하며 시설 내에서 최소한의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소년사법처리 과정 청소년의 건강점검 및 의료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리들이 입소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때 시설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시설내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권리에 대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소년사법과정에서 대한 국제적 규정으로는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아동권리조약,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유엔가이드라인 및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등이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오영근, 2002; 박병식, 2003: 85). 그중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1985년 9월에 개최된 범죄예방과 범죄자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결의되어 동년 11월의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채택시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기타 청소년에 관한 모든 국제적 권리문서에 유의하며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소년절차에 있어서 인권보장의 최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각국의 소년법제 및 운용의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을 완화하고 비행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될 수 있는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년사법관련 기관간 협력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과 지역사회교정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남미에(2004)에 따르면 검·경찰,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지역사회기관 등 소년사법관련 기관들은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지원, 보호함에 있어 다기관간 연계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지하는 반면에 실제 행해지는 연계횟수는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연계대상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연계내용은 단조롭고 단편적이어서 청소년의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중심의 처우에서 벗어나 교정시설은 보다 전문화해서 특화하고 전반적으로는 지역사회교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 부모, 지역사회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경찰, 보호관찰관, 소년원과 연계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자원을 연결, 조정, 개발하는 전문가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이 센터는 지역사회교정의 중심축으로서 청소년과 다양한 사법기관, 교정기관, 지역사회기관을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개별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끝으로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어떻게 처우하느냐는 그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수준과 직결되는 척도이자 사회복지 수준의 바로미터이다. 오늘의 비행청소년이 내일의 범죄인이 되지 않고 건강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체계의 과감한 개혁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 지역주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세현. 2000. 『청소년비행의 비공식적 통제와 낙인의 효과: 가정, 학교, 사법기관에서의 통제경험의 관계』.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두실·전영실. 1996.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영만·손영우. 2003. “탈북자들의 소외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김인숙. 1992. “여성출소자들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6: 9-32.
- 김미경. 2001. “건강증진행위수준과 삶의 질 간의 관련성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미간행).
- 김준호·노성호. 1989. 사회계층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형사정책』 4: 197-238.
- 김준호·이순래. 1994.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남미에. 2004.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3): 151-180.
- 노유자. 198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연구”. 연세대학교 간호학박사 학위논문(미간행).
- 문선화·류기형·김경호·이경남·홍봉선. 2000. “아동의 삶의 질: 과거, 현재, 미래”. 『한국아동복지학』 9: 9-49.

- 문화관광부. 2003. 『청소년백서』.
- 민성길·이창일·김광일·서신영·김동기. 2000. "한국판 세계보건 기구 삶의 질간편형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 571-579.
- 민성길·김광일·박일호. 2002.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지침서』. 서울: 하나의학사.
- 박병식. 2003. "청소년교정의 국제준칙과 외국의 현황". 『소년교도소의 방향과 모델 -천주교 민영교도소 연구발표회』. 천주교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백은령. 2003.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요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심영희. 1987. "상대적 박탈감과 비행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2: 69-116.
- 오복자. 1994. "위암환자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 예측모형". 서울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오영근. 2002.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인권보호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 오영근·최병각. 1995. 『소년사법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경아·노병일. 2005. "도시 노숙자의 삶의 질 예측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1): 219-243.
- 윤용규·최종식. 2000.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11(4): 44: 25-48.
- 이명숙. 2003. "우리나라 소년교정보호현황과 범죄소년의 사법복지 욕구분석". 『소년교도소의 방향과 모델』. 천주교 민영교도소 연구발표회. 천주교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이성식. 1997. "사회내처우 비행소년과 시설내처우 비행소년의 재범가능성에 대한 비교연구." 『형사정책』 9: 193-214.
- 이종렬. 1999. "WHOQOL-BREF을 이용한 대구광역시민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전신현. 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 63-82.
- 정진연. 1996.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8: 169-194.
- 조명환·김정오·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61-694.
- 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 최윤진. 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홍봉선·남미애. 2000. "소년사법 절차상의 처우와 정서적 반응 및 비행교정성과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청소년학연구』 7(1): 195-220.
- 홍봉선·남승규·남미애. 2002a.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교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183-209.
- 홍봉선·남승규·남미애. 2002b. "사법처리경험과 소속이 청소년의 스트레스반응, 사회적 지지, 교정성반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9(2): 45-69.
- Adams, M. S., C. T. Robertson, P. Gray-Ray, and M. C. Ray. 2003. "Labelling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8(149): 171-186.
- Bearsley, C., and R. A. Cummis. 1999. "No place called home and colon: Life quality and purpose of homeless youth." *Journal of Social Distress and the Homeless* 8(4): 207-226.
- Ben-Zur, H. 2003. "Happy adolescents: The link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Internal resources, and parent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2): 67-80.

- Bradford, R., D. L. Rutherford, and A. John. 2002. "Quality of life in young people: ratings and factor structure of the quality of life profile-adolescent version." *Journal of Adolescence* 25(3): 261-274.
- Burke, P. J., and J. C. Tully. 1977. "The measurement of role identity." *Social Forces* 55: 881-896.
- Chipuper, H. M., P. Bramston, and G. Pretty. 2003. "Determinants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among rural adolescent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1): 79-95.
- Coler, A. L., R. E. Mckeown, M. Sanderson, K. E. Davis, R. F. Valois, and E. S. Huebner. 2000. "Severe dating violence and quality of life among South Carolina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9(4): 220-227.
- Conger, K. J., M. A. Rueter, and R. D. Conger. 2000. "The of economic pressure in the lives of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The family stress model." pp. 201-233. in *Negotiating Adolescence in Times of Social Change*, edited by L. J. Crockett, and R. K. Silbereis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wdery, J. E., and J. A. Pesa. 2002. "Assessing quality of life in women living with HIV infection." *AIDS Care* 14(2): 235-245.
- Cummins, R. A., M. P. McCabe, and E. Gullone. 1994. "The comprehensive quality of life scale: instrument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n tertiary staff and studen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372-382.
- Dew, T., and E. S. Huebner. 1994. "Adolescents' perceived quality of life: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2(2): 185-199.
- Drotar, D. 1998. "Measur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aulker, M. S. 2003. "Quality of life for adolescents with type 1 diabetes: Parental and youth perspectives." *Pediatric Nursing* 29(5): 362-368.
- Field, T., C. Lang, R. Yando, and D. Bendell. 1995. "Adolescents' intimacy with parents and friends." *Adolescence* 30: 133-140.
- Franco, N. and M. J. Levitt. 1998. "The social ecology of middle childhood: Family support, friendship quality, and self-esteem." *Family Relations* 47(4): 315-321.
- Jirojanakul, P., S. M. Skevington, and H. John. 2003. "Predicting young children's quality of lif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7(7): 1277-1288.
- Harding, L. 2001. "Children's quality of life assessments: A review of generic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measures complet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e* 8(2): 79-96.
- Herman-Stahl, M., and A. C. Peterson. 1996. "The protective role of coping and social resources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adolescents." *Youth Adolesc* 25: 733-753.

- Huebner, E. S. 1997.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pp. 271-278. in *Children's need II*, edited by G. Bear, K. Minke, and A. Thomas. Bethesda, MD: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 _____. 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3-33.
- Lincoln, K. D. 2000. "Social support, negative social interac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ervice Reivew* 74: 231-252.
- MunozSastre, M. T., and G. Ferriere. 2000. "Family decline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9: 69-77.
- Neto, F. 2001.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in portuga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1): 53-67.
- Pagano, M. E. 2000. *Non-parental social support and the well-being of low-income, minority yout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western.
- Patrick, D. L., T. C. Edwards, and T. D. Topolski. 2002. "Adolescent quality of life, Part II: initial validation of a new instrument." *Journal of adolescence* 25(3): 287-300.
- Rosenblatt, J. A., A. Rosenblatt, and E. E. Biggs. 2000. "Criminal Behavior and Emotional Disorder: Comparing Youth Served by the Mental Health and Juvenile Justice Systems."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 & Research* 27: 227-238.
- Shek, D. T. L. 2003. "Economic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with economic disadvant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4): 259-270.
- Smith, T. W. 1992. "A life events approach to developing and index of societal wellbeing." *Social Science Research* 21: 353-379.
- Topolski, T. D., D. L. Patrick, T. C. Edwards, C. E. Huebner, F. A. Connell, and K. K. Mount. 2001. "Quality of life and health-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Official Publication of the Society for Adolescent Medicine* 29(6): 426-435.
- Ullman, C., and M. Tatar. 2001.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sraeli adolescent immigrants: A report on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4): 449-463.
- Van Beest, M., and C. Baerveldt.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om peers." *Adolescence* 34: 193-202.
- Weigel, D. J., P. Devereux et al., 1998.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support and stress: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 158-178.
- Zullig, K. J., R. F. Valois, E. S. Huebner, and J. W. Drane. 2004.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r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cale with adolescents." *Public Health Reports* 119(6): 577-584.

Factors Influencing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Nam, Mi-Ahe
(DaeJeon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investigate how the juvenile delinquent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evaluate their quality of life. Second, to examining which factors influence their quality of life.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is study used sample of 570 juvenile delinquents in Seoul, Busan, Daejeon who are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and used the Korean Version of WHOQOL-BREF (brief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measure). To examine this purpos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 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Juvenile delinquent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have complex problems and needs, and their quality of life are lower than the civil in the psychological, social relations, environment domain.

2)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quality of life in the general domain are stigma by parent, violent, undemocratic treatment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family income level. But the factors of each domain of quality of life differ to some ext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of physical health domain are violent, undemocratic treatment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first arrest time, stigma by others, sex, juvenile justice process. Significant factors of psychological health domain are delinquency frequency, stigma by parent, stigma by others, first arrest time, family income level, sex. Significant factors of social relations domain are first arrest time, stigma by parent, delinquency frequency, family income level, stigma by friend. Environment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family income level, stigma by parent, sex, delinquency frequency, juvenile justice process.

Key words: Juvenile Delinquents, Quality of life, Youth welfare, Juvenile Justice Process, Youth Right.

[논문접수일 2005. 11. 11. 게재확정일 2006. 1. 18.]